Strategy Weekly

트럼프의 돈로 독트린, 천하 삼분지계와 새로운 질서

Strategist 김재승
jaeseung.kim@hmsec.com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주목, 21세기 돈로 독트린 선언
- 서반구가 미국의 핵심 세력권 및 안보 지역으로 설정
-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동맹국의 역할과 책임 강조. 국방비 증가 피할 수 없음
- 새로운 질서 하에 2026년 연초부터 글로벌 증시 항공/방산주 강세장 진행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주목, 21세기 돈로 독트린 선언

지난 4일 미국 백악관의 공식 SNS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더 이상의 게임은 없다. 까불면 다친다(No games, FAFO)'는 메시지를 올렸다**(그림1)**.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성공과 군사력과 경제력을 통한 미국의 자국 중심 대외 정책 기조를 다시한번 전세계에 알렸다는 평가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를 확보하겠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2025년 관세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발언 이후 막상 막판에는 물러서면서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도망친다)'라고 조롱 받았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축출 작전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가 주목받고 있다. NSS 보고서는 미국 행정부가 발간하는 문서로 행정부의 국가안보 환경과 도전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안 및 수단 등을 담고 있어 전세계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국제 질서에 영향을 미친다. NSS 보고서는 1986년 입안된 '골드워터-니콜스 법(Goldwater-Nichols Act)'에 의거해 행정부가 매년 의회에 국가안보의 총체적 여건과 현황을 예산안과 함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0년 이후로는 행정부가 바뀌면 4년 임기 내 1회 발간하는 관행이 보편화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2025년 12월 5일 NSS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총 29페이지의 NSS 보고서에서 과거 미국은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며 자유무역을 전파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았지만, 동맹국들은 미국을 활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고, 그 결과 미국은 미국적인 가치를 잃고, 중산층이 붕괴되며 산업 기반이 공동화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미국은 힘을 통한 자국의 국민과 안보, 경제와 산업을 최우선에 둔 대외전략을 펼칠 것이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21세기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이라고 할 수 있는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 선언을 통해 '서반구'가 미국의 안정을 위한 최우선의 핵심 세력권 및 안보 지역으로 설정되었다.** 반면 러시아 문제는 개입을 통해

전쟁의 확대를 방지하고, 러시아 불확실성을 낮추며, 유럽 경제의 정상화를 목표하지만 유럽이 방위의 1차적인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유도할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과거 미국이 가졌던 개방을 통해 중국이 국제 질서에 편입될 것이란 믿음이 틀렸다고 전제하며, 중국을 반드시 이겨야 할 상대로 인식하면서도 군사적인 충돌은 피하되 동맹국과의 경제 및 기술 협력을 통해 경제적인 승리를 쟁취하도록 목표하고 있다. 이는 군사적으로는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동맹국들의 방위비 지출과 투자를 강화하도록 압박할 것임을 강조했고, 경제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은 아니지만, 반도체와 AI 등 핵심 영역에 대해서는 경제적, 기술적 우위를 유지해 중국이 미국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도록 목표한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세계의 경찰 역할을 축소하면서, 핵심 지역인 서반구에서의 세력과 안보를 유지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유럽이 지역의 안보를 위한 역할을 다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이 미국의 패권 경쟁 상대가 아닌 지역 강국(Regional Power) 수준으로 세력을 인정하고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일극 체제가 아닌, 각 지역에서 다극화된 지역 세력을 인정하면서 동맹국을 통해 관리하는 트럼프의 천하 삼분지계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질서 하에 2026년 연초부터 글로벌 증시 항공/방산주 강세장

국내 증시는 지난해 12월 이후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강세장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1달간 수익률을 보면 반도체 업종이 +29.5% 상승하면서 코스피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그림2)**. **다만 지난 한주간 업종 수익률을 보면 조선과 상사/자본재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7년 회계연도 미국 국방 예산을 50%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 조선과 항공, 방산 등 국내 방위 산업 관련주들의 수혜 가능성이 높아진 영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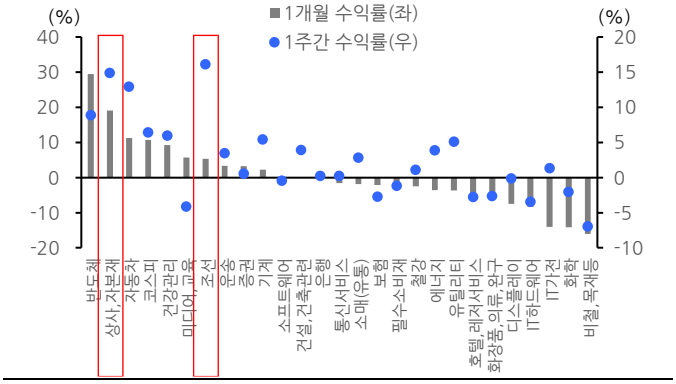
항공/방산주의 강세는 국내 증시에서만 나타난 특징이 아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에서 국방 예산 증액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미국 방산주는 물론, 유럽과 중국, 일본 증시에서 항공/방산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그림3)**. 미국 동맹국들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선언에 안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린란드 논란 이후 유럽의 재무장은 더욱 빨라질 수 있다. 미국의 적대 세력들은 미국의 갑작스런 공격 가능성에 맞서 방위비 지출 확대가 예상된다. 냉전 시대 미국의 국방비 증가는 소련의 군비 확대를 이끌었다.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 같은 지역 강국들은 미국의 '돈로 독트린' 선언을 자신들의 지역내 세력 확대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이는 자발적인 군비 확대 요인이다.

국내 및 글로벌 증시에서 방산 업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결과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여부에 따라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돈로 독트린' 선언 이후 새로운 글로벌 질서로 인한 군비 경쟁 기조에 발맞춰 꾸준히 주목받을 것이다.** 특히 현대의 안보는 육군, 해군, 공군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항공/방산주의 일부는 우주 산업도 영위하는데, 올해 스페이스X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주 산업 개막과 함께 항공/방산주들은 우주 테마로도 주목받을 수 있다. 올해 국내 증시에서 순환매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항공/방산주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그림 1〉 백악관 SNS에 게시된 트럼프 'FAF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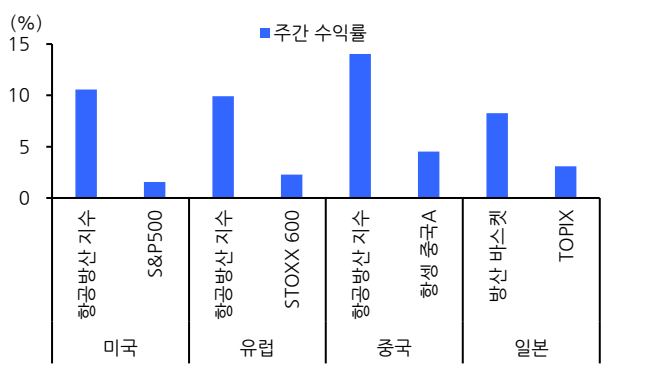
자료: 백악관, 현대차증권

〈그림 2〉 국내 증시에서 한주간 방산 관련주들 강세장



자료: 에프앤가이드, 현대차증권

〈그림 3〉 글로벌 증시에서도 항공/방산 업종 강세



자료: 블룸버그, 현대차증권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 작성자 김재승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